

## ‘불법 게임’ 그 후 일주일... 광주는 흔들림 없었다

姜시장, 게임 직후 긴급회의 “무효”  
지역사회 규탄 목소리 하나로 묶어  
국힘 의원 찾아 탄핵투표 참여 설득  
“시정 안정 운영, 민생 챙겨야” 당부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불법적인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 일주일, 광주는 ‘윤석열 탄핵·퇴진’을 요구하는 시민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흔들림 없는 평온한 일상을 보내고 있다.

1980년 5월 거대한 국가 폭력에 맞서 싸운 경험을 갖고 있는 광주 시민들이 비상상황에 어떻게 대처하고, 맞서야 하는지를 충분히 체득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이 같은 분위기 뒤에는 게임 직후부터 중흥무진했던 강기정 시장의 전방위적 활

약도 한 몫 했다는 평가다.

강 시장은 10일 오전 국회를 찾아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고 있는 국민의힘 의원 설득에 직접 나섰다. 강 시장은 국민의힘 소속 김상욱, 김소희, 성일중 국회의원을 직접 만나 탄핵투표에 동참해줄 것을 요청하는 서한과 함께 한강 작가의 ‘소년이 온다’를 전달했다.

또 명예광주시민이거나 계엄해제투표, 탄핵표결에 참여한 국민의힘 의원실도 직접 찾아가 탄핵 찬성으로 ‘광주’를 지지달라고 호소했다. 지방정부 단체장이 직접 국회의원을 만나 탄핵을 촉구한 것은 강 시장이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강 시장은 이번 비상계엄 상황에서 전국 어느 자치단체장보다 발빠르게 움직였다.

비상계엄이 선포된 3일 밤, 강 시장은

곧바로 4급 이상 간부를 소집해 긴급회의를 열고 계엄 선포에 따른 상황 파악과 향후 대책 등을 논의했고,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사무실에서 비상 대기를 했다.

이 자리에서 강 시장은 “의연하게 대처하자, 흔들려선 안 된다, 비상계엄은 무효”란 설명과 함께 직원들을 독려했고 ‘비상계엄무효 선언 연석회의’를 열어 반헌법적인 비상계엄은 ‘무효’라는 결론을 도출했다. 이어 광주 관내 5개 구청장, 시의원, 시민사회대표, 종교단체, 대학 총장 등과 함께 광주시청에서 ‘헌법수호 비상계엄 무효 선언 연석회의’를 개최해 “반헌법적 비상계엄은 무효임을 선언하며, 국회의 의결에 따라 즉각 해제하라”고 요구했다. 계엄 선포후 채 7시간도 안돼 이뤄진 일이다.

시청 관계자는 “당시 강 시장은 회의 진

행 중 ‘감옥에 가더라도 우리가 해야 한다’고 말할 정도로 급박한 상황이었다”면서도 “최악에는 체포될 수도 있는 상황이 있음에도 많은 원로와 인사들이 모인 것을 보고 역시 광주는 다르다는 것을 느꼈다”고 밝혔다.

이튿날인 4일에는 지역의 계엄 규탄 목소리를 하나로 묶어 더욱 강력하게 만들었다. 강 시장은 계엄이 해제된 이날 오전 5·18 민주광장서 열린 ‘광주시민 비상시국대회’에 참석해 “1980년 5월의 아픔을 기억하고 배웠던 우리는 이 상황을 결코 용납할 수도, 동의할 수도 없으며 이 상황에 대한 책임을 끝까지 물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후 김동연 경기지사·김관영 전북지사·김영록 전남지사·오영훈 제주도지사 등과 공동 성명을 발표, “윤 대통

령의 계엄령 선포는 명백한 위헌이자 무효로 대통령이 국민을 위해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즉시 퇴진뿐”이라고 천명했다.

5일에는 ‘비상계엄’으로 1980년 전두환을 떠돌린 오월단체들을 초청해 긴급 간담회를 개최해 “트라우마로 힘든 오월 가족이 이번 사태로 더 힘들어하지 않을까 걱정된다”면서 “5·18을 경험한 만큼 오월 가족의 뜻을 잘 살릴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 강조했다.

7일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이 무산되자 강 시장은 “1995년 검찰은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고 했지만 국민은 오래 지나지 않아 그들을 처벌했다”며 “국민의힘이 실패한 쿠데타에 면죄부를 줬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 2면에 계속**

노병하 기자 byeonha.no@jnilbo.com

## “광주·전남 환경지킴이들, 수상의 영광 안았다”

### 제30회 녹색환경대상 시상식

환경 보호라는 투철한 사명감을 갖고 광주·전남에서 깨끗한 환경 만들기 위해 헌신하고 있는 기관·단체에 대한 시상식이 열렸다.

10일 전남일보와 광주은행이 공동주최하고 전일엔컬스가 주관하며 전남도·영산강유역환경청·GS칼텍스·광주신세계가 후원한 ‘제30회 녹색환경대상’ 시상식이 광주은행 본점 3층 대강당 KJ상생마루에서 진행됐다. 이날 5개 부문에서 시상이 이뤄졌으며 종합대상 상패·상금 500만원, 3개 부문별 대상 수상자에 상패·상금 300만원, 서한태환경상 수상자에 상패·상금 100만원이 수여됐다.

종합대상(환경부장관상)은 조선내화가 거머쥐었다. 조선내화는 ESG경영을 실천하는 성과를 냈다. 친환경 경영을 선도하고자 ECO여행프로젝트와 녹색환경운동 일환으로 광양시 태인동 일원 해안

정화 활동을 매일 시행하고 있다.

생활속환경실천부문 대상은 나주시가 받았다. 나주시는 조례 등 이행 추진체계를 마련해 2050탄소중립 도시 구축에 주력했다.

자연환경보전부문 대상을 받은 ㈜한솔이엔씨는 해양환경의 지속가능한 개발·보존에 주력한 점을 인정받았다.

환경교육부문 대상은 케이워터운영관리㈜영산강문화관이 선정됐다. 지역사회의 물환경문화와 환경의식을 높이기 위한 환경교육을 펼쳐왔다.

서한태환경상은 크리에이티브아트에 돌아갔다. 크리에이티브아트는 일상생활에서 버려진 쓰레기들을 업사이클한 악기를 개발해 예술·교육으로 시민들에게 기후환경의 중요성을 전파하고 있다.

이재욱 전남일보 사장은 “녹색환경대상은 지난 1995년 ‘영산강을 살리자’는 캠페인을 계기로 제정된 뒤 어느덧 30회를 맞았다”며 “30년간 생활 속 환경실천과 자



‘제30회 녹색환경대상 시상식’이 10일 광주은행 3층 KJ상생마루에서 열려 수상자와 내외빈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뒷줄 왼쪽부터 이성기 조선대 명예교수, 김영우 영산강유역환경청장, 이재욱 전남일보 사장, 고병일 광주은행장. 앞줄 왼쪽부터 최형주 크리에이티브아트 활동가, 안상현 나주시부시장, 윤순일 조선내화(주) 광양공장장, 신성규 영산강문화관장, 박상욱 ㈜한솔이엔씨 대표. **김영배** 기자

연환경보전, 교육 등의 분야에서 총 200여명의 환경지킴이를 발굴하는 성과를 거뒀다. 발굴된 환경지킴이들이 갈수록 심각해지는 지구 생태계 파괴를 늦추고 지

구 환경을 회복시키는 동력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영우 영산강유역환경청장은 “생활 속 환경보호 실천과 교육 등 각 분야에서 시

민들의 참여를 유도해 줘 감사하다”며 “영산강청에서도 체계적인 하천 관리와 지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환경정책을 꾸준히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조진용** 기자

성장장성  
Jangseong

조선시대 성리학의 대가 **장성 필암서원**  
[하서 김인후 선생]의 숨결이 살아 있는

청산도 절로 절로  
녹수도 절로 절로  
산도 절로 물도 절로하니  
산수간나도 절로  
아마도 절로 삼긴 인생이라  
절로절로 늙사오리

- 김인후 선생의 '자연가(自然歌)' -

장성군  
Jangseong

유네스코 세계유산  
한국의 서원